

경제

지역 최고 주식부자 금호 3세 박철완

(그룹 전략경영본부 부장)

평가액 870억 달해 ... 금호 일가 2·3세 상위권

레미콘 생산업체 서산 15세 염종학 112억 '눈길'

광주·전남지역 최고의 주식 부자는 박철완(31)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부장이 차지하는 등 금호그룹 3세대들이 주식 부자 상위권을 독차지했다.

또 레미콘 생산업체인 서산의 3세인 염종학(15)군은 미성년자이면서도 주식 평가액이 112억원에 달하는 등 100억원이 넘는 주식 부자도 11명으로 조사됐다.

본보가 지난 달 30일 광주·전남지역 23개 상장사(유가증권 및 코스닥)의 종가를 기준으로 최대 및 주요 주주 지분을 분석한 결과, 주식 부자 1위는 고 박정구 회장의 아들인 박철완 부장이 차지했다. 박 부장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인 금호석유화학의 지분 11.96%(675억원)과 금호산업 지분 3.59%(195억원)를 보유해 주식 평가액이 870억원에 달했다.

지역 상장사 기준으로 최대주주의 주식 평가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정영진 신세계 아울렛 대표이사이지만 정 부회장은 지역출신 기업인이 아닌만큼 사실상 최고의 주식 부자는 금호그룹 2·3세라 할 수 있다. 정 부회장의 주식 평가액은 광주신세계 1천45억원에 포함해 총 8천442억원으로 집계됐다.

금호그룹 가운데서는 박찬구 전 금호석유 부회장과 아들인 박준경 금호타이어 부장이 각각 533억

원과 509억원 어치의 금호석유 지분을 보유해 부자의 주식을 합하면 1천400억원을 넘었다.

또 고 박성용 회장의 아들인 박재영씨가 428억원, 박삼구 금호그룹 명예회장이 415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100억원이 넘는 최대 주주 가운데서는 단연 서산의 염종학군이 눈길을 끌었다. 염군은 창업자인 염홍섭 회장의 손자로 부친이 사망하자 지난해 10월 51.93%의 지분을 상속받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염군의 주식 평가액은 112억원으로 모친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할 경우 65.02%의 지분에 평가액은 140억원에 육박한다.

이밖에 조선내화 이화원회장(397억원), 화천기공 권영렬회장(212억원), DSR제강 홍화중사장(123억원), 와이엔텍 박용하회장(109억원), 동아에스텍 한상원사장(107억원)이 100억대 주식 부자에 등극했다.

대다수가 2·3세 경영인인 것과 달리 파주의 강민식사장(49)은 신혼 주식부자로 떠올라 관심을 모았다. 파주의 창업자인 강 사장은 올 들어 신종플루가 대유행 하면서 손세탁제가 불티나게 팔리자 본인(45억원)과 부인 등 가족들이 84억원의 주식 부자에 올랐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수년간 신규

Table with 5 columns: 이름, 회사명, 지분율, 평가액, 총평가액. Lists major shareholders like 정영진, 박철완, 박찬구, 박준경, 박재영, 박삼구, 이화원, 권영렬, 홍화중, 염종학, 박용하, 한상원, 남남규, 함양규, 김중성, 이해식, 이준우, 김문식, 임근우, 박영우, 김용주, 양정현.

상장사가 없어 타 지역에 비해 신혼 주식부자가 적다"며 "지역기업의 상장이 많아 주식부자도 많이 나오고 지역 투자자도 이익을 얻는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주먹구구' CD금리 산정방식 손본다

금리 변동 주기도 6개월 이상으로 늘려

가계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의 주요 기준금리로 이용되는 양도성 예금증서(CD) 고시금리의 결정 방식이 손질된다. 이는 CD 고시금리가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금리 변동 주기가 현행 3개월 위주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CD 고시금리가 투명하게 결정돼 대출 시장에서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산정 방식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투자협회와 고

시하는 CD 금리의 산출 실태를 점검해 객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금융투자협회는 CD 거래 실적이 많은 10개 증권사로부터 매일 CD 금리를 취합해 고시금리를 정하는데 일부 증권사는 다른 회사의 사례를 참조해 대출 보내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CD 거래가 없는 날에도 고시금리가 올라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금투협과 함께 ▲증권사들이 CD 금리 산정의 명확한 근거를 만들고 ▲실제 CD 거래 금리를 금투협에 제공하도록 하며 ▲거래가 없을 때는 CD 가격 호

가 등 시장 상황을 금리에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은행들에 만기 3개월짜리 CD 금리에 연동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줄이고 금리 변동 주기가 6개월 또는 1년 이상인 대출 상품이나 고정금리형 상품의 판매 비중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금융연구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출할 때 은행들이 CD 금리 이외에 실질 조달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공동 작업방을 만들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었지만 담합 우려가 제기되고 대출 기준금리의 산정 주체를 놓고 의견이 분분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대 광주시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6회 수출의 날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남구 '효사랑 상품권' 판매실적 5억 넘어서

광주시 남구의 '효사랑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 실적이 5억원을 넘어섰다.

남구는 관내 재래시장인 봉선시장과 무등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5천원권과 1만 원권 등 모두 20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직접 발행해 지난 9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중간 집계결과 판매 두 달 여만에 5억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1천만원 안팎의 상품권이 팔려간 것이다.

구는 관내 사회단체와 기관, 할인점,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상품권 구매를 호소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두바이 쇼크' 벗어난 코스피 1,550선 단숨에 회복

금융시장이 '두바이 쇼크'의 충격으로부터 진정되자 코스피지수도 1,550선을 되찾았다. 지난달 30일 코스피지수는 31.10포인트(2.04%) 오른 1,555.60으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지난 주말 유럽증시의 반등 소식에 힘입어 23.15포인트(1.52%) 오른 1,547.65로 출발한 뒤 곧바로 1,550선을 웃돌았고, 강화된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한때 1,566.51까지 오르기도 했다.

두바이 국영기업 두바이월드와 채무상환유예선언, 즉 '두바이 쇼크'가 증시를 강타한 지난 27일 외국인은 2천98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으나 이날은 1천306억원의 순매수로 반전했

다. 개인도 1천499억원의 순매수 규모를 보였으나 기관은 2천864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 역시 7.43포인트(1.65%) 오른 459.10으로 개장한 이후 시장 전반적인 반등 분위기에 편승해 2.65포인트(2.80%) 오른 464.32로 마감하며 460선 위로 올라섰다. 두바이 쇼크로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은 1,160원대 초반으로 안정화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12.70원 내린 1,162.8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 강화

자구계획 이행 상관없이 모두 심사 대상

자본잠식 코스닥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강화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자본잠식 상태 코스닥기업이 자구계획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가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2개 반기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또는 '최근 사업연도 완전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코스닥기업이 결산일 이후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증자 등 자구계획을 건실하게 이행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면 실질심사를 비껴갈 수 있다.

그러나 자구계획 이행으로 상장폐지를 모면한 코스닥기업들의 재무상환은 대체로 반박 좋아졌을 뿐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광주시 '무역의 날' 대통령상 수상

광주시가 지난달 30일 제46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수출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 수상했다.

시는 수출증진 노력과 단체장 관심도, 우수사례 등 전 항목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아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대표적인 소비 중상도시에서 수출 중심도시로 거듭났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광주시의 수출액은 2001년 30억 9천만 달러로 부산의 45억 7천만 달러에 뒤졌으나, 2005년에는 71억 8천만 달러로 부산의 수출액(67억 6천만 달러)을 크게 앞질렀다. 또 2007년에는 울산과 인천에 이어

부산과 함께 광역시 가운데 세 번째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도시 규모가 큰 대구의 2배, 대전의 3배에 이르는 것이다.

이처럼 광주시의 수출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가자자동차의 수출이 지난해보다 29%가 늘었고 반도체와 가전제품도 각각 24%, 19.3%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기술, 자금지원 등이 함께 어우러져 이룬 결실"이라며 "광주 R&D 투자가정과 국립 광주 과학관 설립 등 과학기술 인프라를 대폭 늘려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Real estate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price, and features. Includes contact info: 062)236-3400.

수완 메디컬 센터. Medical services including 1st floor surgery, 2nd floor internal medicine, 3rd floor orthopedics, 4th floor dermatology, and 5th floor ophthalmology. Contact: 959-1033.

대인동삼일부동산. Real estate services and listings. Contact: 010-5878-0005. Includes text about buying/selling property.